

법 묻는 이에겐 언제나 문 ‘활짝’



진제 스님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이 동화사 금당선원 주변에서 포행하고 있다.

조계종 전계대회상을 지낸 범룡 스님의 입적으로 분주한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동화사 열화실에도 조문차 동화사를 찾은 스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보통 때 같으면 금당선원 수좌들의 오전 정진을 경책한 후, 발우공양을 할 시간이지만 범룡 스님의 장래관계로 이날 점심에는 상 공양을 따로 받았다. 원장국, 콩나물무침, 오이무침 등 깔끔한 반찬으로 차려진 상을 받은 진제 스님의 공양 시간은 10분 내지 15분. 발우공양에 익숙해진 탓이라 공양 시간이 매우 짧다. 도를 위해 살아왔을 뿐 평생 몸을 보살피지 않았다는 스님에게 음식은 몸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식일 뿐이다.

보통 아침공양으로는 사자가 후원에서 가져온 죽을 먹고 점심에는 선원 수좌들과 발우공양을 하고 저녁에도 역시 후원에서 먹는 그대로를 분별없이 먹는다.

“도를 위해 절집에 왔지, 편안하게 지내려고 절에 온 것이 아니니까 음식이든 입는 것이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도를 위해 산다는 그 신조가 그대로 이어져 왔지.”

진제 스님은 건강에도 무심했다. 21세 출가 이후 깨달음을 인가받았던 34세까지는 모든 반연을 쉬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했다. 이 공부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망망대해를 홀로 거니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만큼 치열한 구도 행각을 이어온 스님에게 건강을 돌볼 겨를이 허락될 리 만무했다. 깨

새벽 2시 45분 예불로 하루 시작
저녁시간 제자에게 발 받기
일상사 나누며 공부 점검



누가 언제 찾아와도 항상 바른 참선법을 지도해 주는 진제 스님은 화두와 의식이 한덩어리가 되는 일념삼매를 지속할 것을 당부한다.

달음을 인가받은 후 1971년 부산에 해운정사를 창건하고 후학들을 지도하느라 세수 일흔을 넘긴 지금까지 포다시 건강은 뒷전이다.

그러다보니 목 뒤에 군살이 생겨 5-6개월전부터는 스님이 직접 개발한 소나무 홍두깨로 이리 저리 지압 삼아 마는 것으로 건강관리를 대신하고 있다.

새벽 2시 45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영산전 법당에서 새벽예불을 드리고 돌아오면 한 시간여 동안 홍두깨 운동을 빼놓지 않고 있다.

“뒤통의 굳은살이 아무리 주물러도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소나무 홍두깨를 해서 자연스럽게 굴리다 보니 목도 가볍고 머리도 가볍고 효과가 좋아. 내가 개발한 나만의 건강비법이지. 허허허.”

홍두깨 운동을 마친 스님의 다음 일과는 참선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하는 참선과는 다르게 ‘깨달은 세계를 그대로 누리는 참선’이라고 했다.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스님은 “깨닫고 나면 중생의 습기는 없어지고 항상 밝은 진리의 즐거움이 지속 된다”고 답했다.

“나라는 아상이 없고 바른 진리의 눈을 갖추었기 때문에 세상법에 초연해지고 밥을 먹고 물을 마셔도 집착이 없으며 진리의 낙이 함께 해서 그제 생활 화가 되고 그대로 일상의 살림살이에 수용 된다”는 것이었다.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 금당선원 수좌들을 향해 장군 죽비를 내려치며 경책을 하고 있는 스님은 이 시간을 제외하면 언제든 또 누구든 법을 묻는 사람들을 맞아 바른 참선법을 지도하는 일을 하루도 빼놓지 않는다. 특히 진제 스님은 신봉고하를 막론하고 공부에 진실하고 간절한 이를 각별히 반긴다.

“법을 묻는 사람에겐 언제든 내 방문이 열려 있어야. 발발 사람이 많이 오거든. 와서 달려들고, 먼소리 하는 사람도 많아.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큰소리 치

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시 와서 참회를 해. 이제 동화사에 머물면서 잘 지도를 해서 내 밑으로 한 개, 두개의 ‘법기(法器)’는 만들어놓고 가자지.”

하루해가 저물어가는 저녁시간. 진제 스님과 시자스님은 세수 대야를 사이에 두고 마주앉는다. 저녁 예불이 끝나면 이어지는 이 시간은, 시자스님이 스승의 발을 씻어 드리는 일로 스승과 제자의 내밀한 정이 오가는 순간이다. 스승의 발에 비누를 칠하거나, 비누를 물로 헹구어내는 때에도 제자의 화두는 끊이지 않아야 한다. 발을 씻는 짧은 순간이지만 진제 스님은 그날의 간단한 일상사를 챙겨 물으며 드러나지 않는 은근한 사랑으로 제자의 공부를 점검한다.

세수가 많아질수록 제자를 야단치는 일이 줄어들고 있다는 진제 스님. “화두와 의식이 한 덩어리가 돼 일념삼매가 지속되도록 하라”는 당부로 일관하는 진제 스님의 하루는 ‘마주 손뼉을 칠 지음인을 찾아가는 한 길’로 통하고 있었다.

대구 동화사/글=천미희 기자·사진=고영매 기자



금당선원에서 안거중인 후학과의 대화.



진제 스님이 건강관리 일환으로 개발한 ‘홍두깨 운동’.



범룡 스님의 입적으로 동화사를 찾은 스님들과의 인사.

향곡선사로부터 전법계 받아

진제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대종사이며 원로회의 의원이신 진제 스님은 1931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했다. 석우 스님을 뵈고 불법을 배우던 오촌 당숙을 따라 나섰던 1954년 정월, ‘범부가 도인되는 길’을 찾아 출가했다. 세수 21세. 1967년 화두 관문을 뚫고 향곡 선사로부터 전법계를 받아 경하→혜월→운봉→향곡 선사로 전해 내려오는 법맥을 이었다. 1971년 부산 해운정사를 창건, 도심속 참선의 대중화에 전력해왔으며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제 스님 과 신도들도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추운겨울 온열기능이 되는 참선방식으로 수행정진 하세요~
스님, 선객, 가공수련자, 일반신도를 위하여... 태화산 광현스님이 20년 경험으로 만든 방식



법회 및 기도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세라믹보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 토르말린, 피톤치트에 의한 건강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효능

- 장시간 사용에도 가장 편안한 자세 유지와 비박의 냉기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 척추의 안구를 예방하여 줍니다.
- 장시간의 좌선 및 운공시에도 전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 얇아만 쳐서도 단전에 공력이 증가됨을 느껴실수 있습니다.
- 단전의 연정화기에서 연기화신을 이루어 연신환하여 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

- 커버 : 최고급 내차 및 원단사운
- 쿠션 : 특수제작 및 설계 메모리폼
- 열원 : 신기술 "세라믹히팅보드"
- 콘트롤러 : 온도조절 가능

제품 가격

- 스님용참선방식 : 180,000원
- 참선방식 : 145,000원
- 절방식 : 75,000원
- 건강좌욕방식 : 94,000 ~ 98,000원
- 지동자방식 : 98,000/88,000원

*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특허 및 인증제품

제품 특징

- 원적외선 대량방출에 의한 건식 정질 효과
- 세라믹히팅보드를 사용하여 전자기파 걱정이 없습니다. (열선이 아님)
- 세라믹히팅보드의 복사열은 많이 차지 않습니다.
- 특수제작된 메모리폼은 바른자세를 유지해 줍니다.
- 표면에 처리된 음이온수, 토르말린, 피톤치트는 살균, 정화기능이 있습니다.
- 최고급원단사용 및 온도조절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구입 및 문의

- 전화: 031)429-3383 / 010-6368-3346 / 011-281-5619
- 홈페이지 : www.heatway.co.kr
- 제 조 원 : 주예간하이텍
- 계좌번호 : 농협 591-17-004807 (예금주 : 예간하이텍)

불자님들을 위한 12지 건강 지킴이 메달



인연 닿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한 삶과 행복을 기원하고자 12지 건강 지킴이 1호(취미)에서 12호(복지)까지와 수비 경명주사와 육기의 기운으로 전자파를 차단하는 핸드폰 고리를 오랜 기간 연구하여 정성을 다하여 개발시판하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의 12지 띠에 맞추어 사용하시면 분명 건강과 행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 재료 : 99%의 은 (중량 - 메달 5돈, 목걸이 10돈)
- 특징 : 얇은 12지신 문양은 건강과 행운을 함께하며, 뒷면의 육기(피라미드 원리)에서 나오는 특이한 기(氣)를 발생하여 생기(生氣)를 복돋아 주며, 자연 식물성 특수 접착제로 배합하여, 천연광석인 최고급 수비 경명주사와 글니로 마무리 채색

▶ 12지 건강 지킴이 메달 사용효과

천연광석인 최고급 수비 경명주사와 글니채색 및 육기의 기운이 함유된 제품하기에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며, 신경안정과 피로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며 전자파 차단과 정전기 방지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경명주사의 효능

본초경에서는 경명주사는 "맛은 달고 약성은 약간 차고 독이 없으며 심경에 들어가 정신을 안정시키고 진정하여 보기(補氣), 지당노(治糖尿) 등을 치료한다" 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정신을 안정시키고 경풍을 멈추며 열을 내리고 독을 푸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작용때문에 잘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수면장애, 건망증, 경풍, 경간, 정신병, 열이 심하고 정신이 흐리며 헛소리 하는데, 피부가 헌데등에 쓰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기, 간질, 우울증 등의 신경성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금라성(錦羅星)

인연차 : 051)646-2700, 632-0173 부산 진구 범천 1동 845-11(3층) 언제나 건강한 삶과 행복한 나날을 기원합니다.....



12지 건강 지킴이 메달 뒷면과 핸드폰을 앞뒤

▶ 육기(六氣)의 기운(氣運)

육기의 에너지는 피라미드 에너지와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한 에너지를 발생한다. 어떤 물질을 변화시키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개의 육기형의 선과 음양자의 조화를 유지 한다면 만족할 만한 육기의 에너지를 발생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집중력의 향상, 잠적치유 효과 증대

새해엔 꼭 발심하고 선지식 만나보세요

시냇물 흘러가듯 일상생활에 화두 이어져야

진제 스님의 가르침

새해에는 마음을 새롭게 가져서 허송세월을 안 해야 합니다. 허송세월을 안 하기 위해서는 바른 참선을 해서 입념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바른 지도를 받고, 바르게 참구해서 실행에 옮기는데 제일입니다.

참선이 일상생활에서 무르익어야 합니다.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장사를 하나 농사를 지으나 화두가 흐르는 풀처럼 항상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게 입념이 지속되면 밝은 지혜 눈을 갖추게 되는데 그러면 자중으로 마음의 갈등이 없어지는 동시에 사물도 정확하게 판단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주 명랑하고 자신만만하고 근심걱정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해서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발심을 했으면 앉아서 익히는 것이 출발선입니다. 좌선을 할 때 바른 자세가 정립돼야 몸품이에 그림자가 없고, 화두 드는 데만 집중이 됩니다. 자세가 바르지 않고 화두를 챙기는데 힘이 들어가면 병이 오고 상기가 들어서 참선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바른 자세가 중요한데 평좌로 앉아서 양손을 뜨개 아랫배에 붙이고 가슴과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게 하고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2m 앞 아래에 화두를 두되 시선은 편안하게 두되 눈을 뜨고 생각으로만 화두를 챙기면 돼요.

그러면 바른 자세가 유지되면서 화두가 흘러가게 되고 상기도 방지가 됩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고 흘러가다가 혼침과 망상이 침범하면 다시 또렷 또렷하게 챙기면 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보면 나중에는 한번 챙기면 한 시간이 흐르고, 몇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한 경지는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무한한 노력을 계속한 끝에 마음속의 화두가 시냇물처럼 맑아져서 흐르듯 흘러가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몸은 자기가 할 일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화두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혜를 밝히는 이 일에 열중을 해서 마음속에 간절히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오매불망 정진하다보면 마음속의 갈등이 불바람에 녹는 듯이 없어져 버리면 서 지혜가 밝아져서 탕탕자재하게 되는 겁니다. 비고 비어서 결립이 없는 무애의 그 맛을 봐야 되는데 그 때가 고비입니다. 목숨을 다해서라도 대도를 알아야겠다는 간절한 발심이 선 사람만이 그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생에 이 일을 해결해서 대장부의 활개를 쳐야겠다는 용단을 내린 이는 한 3년, 또 길게는 10년만 하면 해결이 됩니다.

나도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내신 석우 스님을 만나 발심 출가했고 공부 도중 남방 제일의 대선지식 항곡 선사의 바른 지도를 받으며 법의 방망이를 맞고 오로지 화두와 씨름한 끝에 오늘날 진제가 됐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진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대도(大道), 즉 바른 공부는 먼저 깨달은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들이어서 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쳐겠다는 확고한 신심과 발심으로 해야 합니다. 허공보다 더 넓은 진리의 세계를 스승 없이는 도저히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인가받은 선지식을 찾아가 공부를 점검받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대도시가 많지만 서울특별시를 당하지 못하듯이 부산 대전 대구 등에서 서울에 다 왔다고 착각하고 우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나를 찾아와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진리'라는 서울이 경기도 한복판에 있는데 수원, 대전이나 대구에 와서 이곳이 '진리의 고향' 서울이라 착각을 하는 이가 터져 있어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진리'의 고향인 경기도 한복판에 이르러서 남산에 올라 전체를 다 바라보아 사방이 환해지고 등문서답을 멈추고 비로소 바른 문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문답시에도 선지식이 아니면 가리지를 못합니다.

찾아오는 이가 부지기수지만 아직 바른 답을 하는 이가 없어요. 여래선 경지의 답을 하는 이가 몇 있지만은 그걸로는 안 되거든요. 모든 부처님이 비밀히 전한 '향상 일구(向上-句)'의 눈이 열려야 허락을 하고 제자를 두고 불법을 전하는 것이



나도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알았다'는 그릇된 지견이 나서 그 길로 공부를 그만두고 전국의 큰 스님이라는 큰스님은 다 찾아 물어봐 모든 시간을 허비한 적이 있어요. 어떤 스님은 옳다 하고 어떤 스님은 그르다 해서 한 3년을 허비했지. 그런데 항곡 스님만이 내 말문을 막아버렸거든. 그래도 수승을 잃고 오대산으로 공부할 허려 들어갔는데 그 때는 절집 생활이 아주 어려웠어요. 밥 한끼도 근근히 먹고 석달 내내 김치 한가지로 생활하고 집무도 없는 채로 오로지 화두만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시름 자려고 하면 친구가 없으니 좌복을 베에 깔고 새우잠을 자



선지식을 만나 제대로 지도 받으며 참선할 것을 강조하는 진제 스님.

다가 다시 새벽 3시쯤 일어나고 했거든. 해암 스님, 환안 스님 등과 율령정진을 하면서 정진을 이어가던 어느날, 흑안이 풀리면서 푸근한 날이었어요. 양지 바른 마루에 앉아 '내가 정말로 알았다고 끄덕거리고 있는데 바로 알았는가? 모든 고인의 법륜을 바로 보고 막힘이 없는가?' 자문을 하게 됐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물으면 무엇이 통하지를 알아야. 이걸 가지고 내가 알았다고 허송세월을 하면 나의 신세가 말이 아니라 싶어서 백지 상태로 돌아가 다시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 길로 항곡 스님을 찾아 뵈고 그곳에서 10년 세월을 보내면서 화두를 타파해서 등문서답하던 것을 바로 보는 눈을 갖춰서 전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항곡 스님께 전법계를 받은 후, 내 생애 남은 일은 오직 한가지, 법을 전할 법기(法器)를 키워내는 일뿐이지. 그래서 법을 묶는 이라면 누구에게든 문을 열어놓았고, 내가 동화사에서 12년동안 조실로 있으면서 후학 지도에 열의를 다하고 있어. 해운정사에도 30여 명이 공부 중이니 지도를 계속 하면 법을 이룰 법기(法器)가 '한개'는 나올 것이라 믿고 있구만. 하하하!

열반적멸본무명(涅槃滅滅本無名)커니 (열반적정이 본래 이름이 없으니) 환작어여조사(轉作如如是變)라 (여려하고 분별 지을 것 같으면 문득 변한 것이다) 율문경중하극중(律問經中何極則)면 (경 가운데 어떠한 것이 최고고 물으면) 석인야문목계성(石人夜聞木鷄聲)이라. (돌사람이 밤에 나무로 깎은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다) 돌사람이 밤에 나무로 만든 닭울음소리를 듣는 경지를 알겠는가! 부처런히 정진해서 이 뜻을 알아 모든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비밀히 전한 심인(心印)을 이를 장부가 되길 바랍니다.

진리=선미희 기자 · 사진=고영매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45>



불구대천의 원수 (2)

곤히 잡든 왕의 얼굴을 내려다보자니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약소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순순히 나라를 넘겨줘야 했던 아버지의 그 억울함. 그 후에 이어진 불안하고 암울했던 도피의 나날들, 병화적으로 나라를 넘겨주었음에도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만 부모님의 원한...

디가부의 마음속에는 모진 설움과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원수! 네가 한 짓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고스란히 받을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뇌리를 강하게 때리는 어떤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긴 것을 보지 말고 짧은 것도 보지 마라. 원한은 원한으로 누그러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들아, 원한 아닌 것에 의해서만 원한은 누그러진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행장으로 끌려가면서 허공에 대고 외쳤던 그 말이었습니다. 디가부는 그 음성에 놀라 자기도 모르게 칼을 칼집에 도로 넣었습니다.

디가부는 죽이려던 마음을 품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결국 왕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디가부야, 너는 나의 목숨을 살려 주고 나는 너의 목숨을 살려 주기로 하자."

왕궁으로 돌아와 며칠이 지나자 왕이 디가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가 허공에 대고 긴 것과 짧은 것을 보지 말라고 외쳤던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긴 것을 보지 말라는 말은 원한을 오래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짧은 것을 보지 말라는 말은 우정을 급하게 끝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누그러지지 않는다는 말은 왕께서 제 부모님을 죽였으니 제가 왕의 목숨을 빼앗을 텐데 그러면 왕의 측근에서 다시 제 목숨을 빼앗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 편인 사람들 중 누군가가 다시 왕의 측근을 해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한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제 목숨을 살려 주셨고 저는 왕의 목숨을 살려드렸습니다. 원한 아닌 것으로 원한이 누그러졌습니다. 제 아버지의 말씀은 그런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하박가)

“원한 아닌 것에 의해서만 원한 누그러진다”는

아버지의 음성 떠올라 왕 살려주고 원한 풀어

하지만 이내 원수를 단칼에 해치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다시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역시 어디선가 그 음성이 들려와 디가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칼집에서 칼을 빼었다 넣었다 하기를 세 차례 하는 사이에 브라흐마뎃타왕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났습니다.

"꿈을 꾸었다. 내가 예전에 죽였던 디가타왕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다가오는 꿈을 꾸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견딜 수가 없었다."

왕의 말을 들은 디가부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아무도 없는 호젓한 숲속,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서있는 복수의 화신 앞에 왕은 온 몸을 떨며 울드렸습니다.

"제발 살려다오. 내 목숨만은 살려다오. 사랑하시는 디가부여."

와들와들 떨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왕의 모습을 내려다보던 디가부는 칼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저의 목숨을 살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해친 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예기(禮記)>에 나옵니다. 한 하늘 아래에 살 수 없는 원수라는 뜻입니다. 결국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누구 하나가 죽어야만 한다는 뜻이지요. 얼마나 지독하게 원한에 사무쳤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런데 위의 디가부 이야기가 음미해보니 부처님은 '원한을 품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원한이 누그러지는 법'을 가르쳤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원한은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푸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답은 뻔합니다. 내가 먼저 풀어야 합니다.

분해서 견디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구대천의 원수가 대대로 이어갈 것이 뻔한 데 어찌겠습니까?

행장으로 끌려가는 순간에 허공에 대고 외쳤던 디가타왕의 그 절규는 사무친 원한을 풀지 못해 몸부림치는 21세기의 인간들을 향한 호소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모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한 법이 『묘법연화경』이다.

<구마라습 삼장>으로 이름 하였을 때 한역(漢譯)을 한 27품 『묘법연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묘법연화경』에서 밝히시는 제이(第二)의 세간법(世間法)이다. 이런 태어남에서는 한역(漢譯)을 한 27품 『묘법연화경』에 들어 있는 비유와 방편과 수리(數理)로 된 내용을 『실상(實相)의 법(法)』의 이치에 따라 해설(解說)함으로써 제일(第一)의 법(法)인 『우주간(宇宙間)의 법(法)』을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즉 제일(第一)의 법(法)과 제이(第二)의 법(法)이 음양(陰陽) 합일(合一)된 모든 법(法)을 드러냄으로써 그 속에 들어있는 제삼(第三)의 법(法)인 근본진리(根本真理)를 총체적으로 드러내어 『우주간의 법』의 이치를 여러분께 전함으로써 『우주간의 법』을 근간으로 하는 보살도(菩薩道)를 정립하고 학원(學問)의 완성 시대에 돌입하여 말세(末世)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정경한 구원을 위해 『묘법연화경』 해설에 착수하여 이제 그 첫 결실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해설(解說)이라고 제초(題號)를 붙여 여러분들께 전하여 드리는 것이다.

필자는 한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들인 《라훌라》로 태어난 적이 있다. 그 이후의 태어남이 인연 따라 중원 대륙으로 들어가서 27품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한역(漢譯)을 한 《구마라습(343-413) 삼장》이며 그 이후 다시 《신라 의상(625-702)스님》으로 태어난 후 이번에 다시 필자가 태어났다.

“우담발화 꽃”이 피는 이유는

진리(眞理)의 출현(出現)을 축하하기 위한

하늘(天)의 상서(祥瑞)내림이다.



◇ 묘법연화경 해설된 부분 : 서품 / 방편품 / 비유품 / 관세음보살보문품 ◇ 신국판 양장 각권 : 18,000원

이러한 (우담발화 꽃)을 그대들이 《참자리 앞에서 나온 꽃》이라고 아무리 부정을 하여도, 때마침 진리(眞理)의 세(世)는 이렇게 세간(世間)에 나타나는 것이다. 서기 2000년 필자의 저서 『실상의 법』이 세간에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하늘(天)은 상서(祥瑞)를 주시어 우담발화 꽃을 피우셨고 이제 다시 을유년(乙酉年) 올해에도 『묘법연화경』 해설의 출현을 위해 우담발화 꽃을 피워 하늘(天)은 상서(祥瑞)를 주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늘(天)의 상서(祥瑞)를 부정하는 그대들은 그대들만 크나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문명화 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한 법이 『묘법연화경』이다. 이러한 한 법의 해설이 출간되니 세계의 모든 법화행자들께서는 부처님의 근본 뜻이 담긴 이 경을 새로이 공부하시기를 바란다. 우주간의 비밀한 진리와 지상의 숨겨진 모든 진리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경이니 불자가 아닌 모든 분들도 함께 동참하여 진리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이 『묘법연화경』임을 밝히는 바이다.

『묘법연화경』을 상세히 해설한 최초의 책!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 (051) 723-2261



◇ 무량일의 경 ! / !! ◇ 신국판 양장 각권 : 18,000원

